

# 문광부 종무실 축소 '파장'

종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가 확정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편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지협)는 조만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개편 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기존의 1실 2과에서 1실 1과체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종무관과 종무과장 1석이 없어지고 종무과의 명칭도 '종교행정과'로 바뀐다. 종무실 직제가 '종무실장-종무관-종무1·2과장' 체제에서 '종무실장-종교행정과장'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종교계는 개편에 따라 정원이 줄어들면

## 1실 2과에서 1실 1과로... 업무 지연·종무실 위축 우려 종교지도자협 "자체적인 대책 세우겠다" 성명 준비

서 발생하는 업무 지체와 이에 따른 종무실의 위축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사이버 종교문제 대처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현재 17명인 정원이 축소되더라도 고유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단체 관련업무 지원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업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종교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문광부는 종무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종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 축소는 문화종교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연택 사무총장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종교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

무실 축소는 옳지 않다"며 "종지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이미 2003년 종무실 폐지계획이 알려졌을 때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이보경 종무실장에게 "종무실은 축소의 대상이 아니라 '종무청'으로 확대 강화돼야 하는 부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해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종무실체제로 확대됐다.

개편 안은 대통령 재가 11월 말~12월 초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uji@buddhapia.com

## "가장 큰 수행은 용서 존재하는 모든 것 한 가족"

### '용서' 공동저자 빅터 찬 한국 독자와의 만남

달라이 라마의 저서 <용서>(오래된 미래)가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전 세계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번에는 '용서해야 행복해지며, 가장 큰 수행은 용서'라며 한국 불자와 독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3일, <용서>의 공동저자이며 30여 년간 달라이 라마의 지근거리에서 함께해온 빅터 찬이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타넷 박물관에서 '독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빅터 찬의 한국방문은 <용서>를 번역한 류

시화 시인의 초청에 따른 것. 홍콩출신 중국계 캐나다인인 빅터 찬은 현재 캐나다 콜롬비아 대학 동양학 연구소 교수다.

빅터 찬은 달라이 라마와의 첫 만남을 "영광한 시간에 영동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다"며 독자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1972년 대학 졸업 후 떠난 세계 여행길에서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게 됐다. 빅터 찬은 달라이 라마가 인도 망명 후 13년만에 만난 첫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정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달라이 라마의 '용서'를 저술한 빅터 찬 교수가(가운데)가 11월 3일 보성 대원사를 찾아 한국의 불자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50년 넘게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가족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강연할 때 한사람 한사람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달라이 라마의 '동체대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빅터 찬은 한국방문에 앞서 '달라이 라

마가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특별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왔다. 9분 분량의 영상에서 달라이 라마는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남한 내에서도 종교, 사상의 견해차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서의 실천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 日서 훔쳐온 고려불화 반환 안해도 될 듯

### 검찰, 최종 구입자 정상물품으로 알고 '선의 취득' 인정

일본 학림사에서 훔쳐온 고려불화의 반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4부(이홍훈 부장)는 10월 30일 일본에서 도난당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이 대구지역 입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10월 12일 일본 경찰청의 수사 공조요청에

따라 일본사찰에 들어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47점(감정가 합계 31억 원 상당)을 훔친 김 모씨와 황 모씨 등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인건했다. 이들이 훔친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 감정가 10억원), 성덕대왕전(聖德太子繪傳, 감정가 6억원) 등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김 씨가 일본에서 훔쳐온 불화는 범행직후 중개상에게 넘겨졌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조선족을 통해 개인 사업가에게 4억 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업가는 또 다른 사업 파트너에게 투자조건으로 불화를 증여했다. 불교신자인 사업 파트너는 대구의 모 암자에 이불화를 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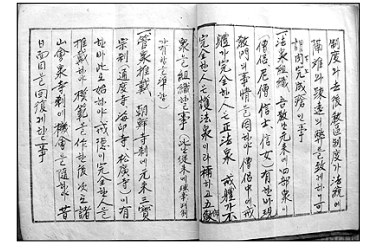
검찰은 "고려불화를 구입한 개인 사업가가 감정을 거쳐 4억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의 취득'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법상 장물이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 합당한 가격에 구입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돼 일본에 넘겨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고불총림, 불교 정화 위해 출범"

### 발굴화제 - 김광식 교수 논문 '고불총림과...' 서 주장

"고불총림의 출범은 기존 교단과의 차별성에서 출발했다. 해방 당시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불교의 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급진적 개혁론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대치승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정화를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에는 처음 공개되는 만암 스님이 친필로 쓴 고불총림 강령 책자. 강령을 보면 호법중(대치승)을 인정하면서 5부중 제도를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김광식 교수(부천대의) 논문 '고불총림과 불교정화'는 고불총림 출범 당시 마련된 강령과 규약을 근거로 고불총림의 개요와 성격을 불교정화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불총림에 대한 학술적 접근도 특이하지만, 불교정화라는 관점에서 고불총림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고불총림을 이끌었던 만암 스님이 왜 대치승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온건하게 정화를 했다'라던 지금과 같은 불교계의 분열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11월 중순 경 발간될 홍선 스님(前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의 정년퇴임 논총에 실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고불총림을 불교정화 측면에서 접근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수반하지 않고 정화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지, 또 대치승을 반드시 승단과 사찰에서 축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일제 식민지 불교 체제하에서 발생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1954년 시작된 불교정화운동은 조계종단을 재정비한 한국 현대불교사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당시 불교정화는 공권력 및 언론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비구승 측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그 당시 불교정화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온건하게 불교정화를 주장한 스님이 있었는데, 바로 만암·효봉·법흥 스님이 그 부류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만암 스님이 고불총림을 조직하면서 11개 항의 강령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기

존의 4부중에서 5부중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1개 항의 강령 중 제 4항 '법중(法衆)조치'에는 승려를 '호법중(護法衆·대치승)'과 '정법중(正法衆·비구승)'으로 분류하

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대치승을 승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이것은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계율과정이 불

가피했음을 인정하고, 제도권에서 대치승의 생존과 활동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부터 청정 비구들이 운영을 주도해 하고 여타 사찰은 점진적으로 비구 중심의 사찰로 전환해 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화에 뜻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정화 측면에서 고불총림은 귀중한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교단과의 차별성, 현실성, 개방성, 점진성 등 고불총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국태민안과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 제5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 ● 팔관회 동참안내

- 시민 불자 여러분이 소망을 담은 연등접수 및 영가천도제 접수를 통해 팔관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팔 관 회 연 등 (1인 1등 10,000원): 회향 시민·불자
  2. 호 법 광 명 등 (1인 1등 100,000원): 각 사찰, 행단체 대표 및 회향 시민·불자
  3. 부 산 발 전 기 원 등 (1인 1등 500,000원): 각계 지도자 및 회향 시민·불자
  4. 수 록 고 존 천 도 제 (영가 1위 5,000원): 회향 시민·불자

#### ● 팔관회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자비의 쌀은 11월 14일(음.10.3)일요일 팔관회가 열리는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팔관회 실천규범 팔재계 지키기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부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 나 치 게 향 을 바 르 고 가 무 를 삼 가 하 라
7. 높 고 넓 은 큰 평 상 에 앉 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 아 닌 때 먹 지 말라

※ 부산불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관회 동참접수는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051)867-0501

11월 14일(음10.3)일요일 오후 4시

### 해운대해수욕장

식전행사·오후 3시 국태민안기원 영산재  
대법회·오후 4시

- ▶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 ▶ 특별후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 ▶ 후 원: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성업인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 교계 각 언론사

제5회  
불교전통문화

# 팔관회

국태민안과  
APEC 성공개최기원  
2005

